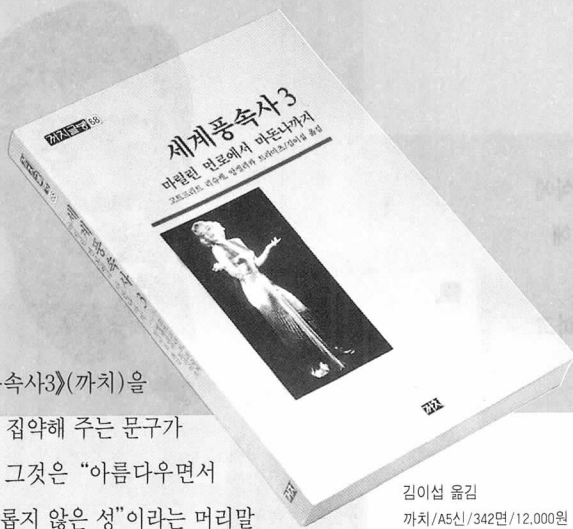


뜨거우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섹스 이야기

고트프리트 리슈케 외의 《세계풍속사3》을 읽고

백지숙 | 문화평론가



《세계풍속사3》(까치)을

가장 잘 집약해 주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우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성”이라는 머리말의 제목이 될 듯 싶다. 그리고 다시 이를, 요즘 우리사회를 한참 달구고 있는 각종 이슈들과 관련지어 조금 바꾸면 “뜨거우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성담론의 다변화된 주제들

이 책은 그만큼 섹슈얼리티와 이를 둘러싼 뜨거운 아젠다들에 대해서 때로는 의학백과사전처럼, 때로는 브레히트의 극처럼, 또 때로는 아주 리얼한 픽션처럼, 우리에게 거리를 두며 탐색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선악과 찬반 혹은 진위를 가르려는 이분법적 입장들이 충돌하며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동시대의 성담론이, 일정한 ‘공부’의 과정을 거칠 경우 차분하게 되짚어보거나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주로 1960년대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섹슈얼리티 변화과정을 기술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갖가지 성 리포트의 자료들과 인터뷰 및 현장조사 위주의 관련서적들, 그리고 각종 포르노그래피나 영화, 소설 등을 동원한다.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성관련 정보라는 게 성 ‘기능’의 즉효를 겨냥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성 에콜로지의 ‘성감대’를 조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예로틱한 환상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점—구체적인 성적 대상을 설정하는 남성과 얼굴 없이 움직이는 육체가 필요한 여성—이 드러나며, 포

김이섭 옮김
까치/A5신/342면/12,000원

르노볼 감상시 성기의 출혈과 질액의 분비를 토대로 실험한 남녀간의 공통점이 드러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내용들은 페미니즘 진영 내부의 전선을 갈라놓으면서, 두 개의 성이 여러 개의 성으로 분화되는 계기와 맥락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준다. 또는 매춘과 스트립쇼, 그리고 도색잡지에 대한 여성들의 구매력이 점점 강세를 띠게 되면서 이제 성차의 무게중심이 남녀간의 불평등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사이 또는 운동권 레즈비언과 소수집단 레즈비언 사이의 그것으로 이전하게 됐다는 것이다.

성에 관한 실용적 정보도 담겨 있어

그렇다고 성과 관련된 실용적인 정보들이 이 책에서 결코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섹스 치료요법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봤던 어떤 정보보다도 정확하고 풍부하며, 애널섹스나 섹스—마조히즘적 관계에 대한 인용 통계들은 어떤 응답패설보다도 재미있고 유용하다. 그런 점에서 나이를 가릴 것 없이 성에 대한 욕망과 호기심은 넘쳐나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무지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런 식의 성과학적 접근방식은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섹슈얼리티를 성과학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한계 또한 명백하다. 이것은 사람들의 신체와 환상과 무의식을 관통하고 있는 성적인 취향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이와 관련된 문화적인

이해의 격차들도 가려내기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많은 경우 그런 차이는 의미 있게 드러나기보다는 생략되거나 기껏해야 괄호 쳐진 형태로, 혹은 행간의 숨은 뜻으로만 읽힐 수 있게 된다.

이 문화적 차이를 번역하는 문제가 아마도 문장을 번역하는 것 못지 않게 역사와 출판기획자에게 힘든 일이었으리라. 하지만 번역과정에서 선택된 듯한 “마릴린 먼로에서 마돈나까지”라는 부제나 책에 삽입된 도판의 ‘김열’은 매우 부적절하다. 전자는 우리사회의 성담론 변화속도와 관련해서 보자면 너무 늦은 제목이고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자면 너무 국부적인 제목이다. 반면에 걸려진 이미지의 배치는 책의 전체적인 톤을 변형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캡션이 없는, 비교적 ‘온건하게’ 선택된 이들 이미지들은 전반적으로 소프트코어 포르노 혹은 예로틱한 광고용 이미지들로 읽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럴 경우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섹슈얼리티의 복합성과 모순들은 사라지고 다시 ‘아삼삼한’ 이미지들의 스펙터클이 나머지 알찬 정보들을 가려 버림으로써 섹슈얼리티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것 또는 알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이다.●